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연대운동 재건을 위한 연대체를 건설하자!

민중행동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이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현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노동자민중의 대투쟁 속에서 대안은 현실화되는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출처:민중의소리)

그러나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격화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에도, 노동자민중은 정권과 자본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변혁운동 세력에 대한 공격과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은 현실의 문제가 되지 못하고, 수세적 대응 속에서 대중투쟁은 거듭 후퇴하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으로 탄생한 통합진보당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심이 아닌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대중운동보다 대중정치가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아닌 대리주의 정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바로 지금,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보다 급진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착취와 폭력에서 해방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기,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변혁, 대안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투쟁과 운동이 절실하다. 파산 선고된 자본주의와 정치세력화를 대체하기 위해 변혁운동과 민주노조운동 재건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자 연대운동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의 활동가, 현장조직, 단체 등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지역 연대운동의 신뢰와 기풍을 복원하고자 하였고, 지역 투쟁에 함께 결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연대운동의 활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현장운동의 장기 침체, 개별사업장과 현장의 사안에 한정된 실천, 지역 노동자 연대운동의 구체적 목표와 과제에 대한 불명확함 등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역 노동자 연대운동은 이런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실천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현실의 운동이 침체되고 담보 상태이지만, 이를 극복하며 끊임없는 현장투쟁과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은 더욱 치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역 노동자 연대운동 재건을 위한 노력과 한계를 바탕으로 지역 연대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연대체를 통해 지역과 현장의 운동세력과 활동가의 협력과 상호 신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전국적 투쟁전선 형성을 위해 광주전남지역에서부터 치열한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과 현장의 운동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의 기획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현장조직과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대체의 위상-체계-방향-목표-과제-사업 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을 지역에서부터 강화하자!

화물연대, 다음 10년을 위한 정치적·조직적 준비가 절실하다

6.25 화물연대 총파업 평가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 이 글 전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끝으로 화물연대의 전국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주체적대외적 조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총파업 결과는 9.9%의 운임인상과 민주통합당의 화물연대 요구안 당론 채택뿐이다. 그러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번 투쟁을 폄하해서는 안 되며, 성과는 성과대로 한계는 한계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이번 파업을 통해 드러난 화물연대의 객관적 한계를 인식하고 혁신해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25 총파업의 배경과 결과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표준운임제의 경우 화물연대가 요구한 직접 강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표준운임준수에 대해 간접규제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2004년 1월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허용했던 개별허가(지입차주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허용)를, 2004년 1월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허용하라는 요구 역시 거부했다. 화물노동자 간의 경쟁을 격화하고 실질 운임을 떨어뜨리는 과적에 대한 근절 방안 역시 형식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면세유 지급 요구,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역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조 정책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 중에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유별나다. 화물연대가 2008년 촛불시위 중에 총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총파업은 유가 폭등으로 적자운행에 들어선 화물노동자들이 참여해 주요 항만, 공단 그리고 대기업 물류센터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파업 5일차에 화물연대에 백기를 들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의 꾸준한 탄압으로 화물연대는 상당한 조직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총파업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주무부서였던 국토해양부는 파업 3일차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예전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 교섭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화물연대는 통합물류협회 내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이틀 간 교섭했지만, 이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한 자릿수 이내 인상을 고집했다. 화주단체연합(화련) 역시 6% 내외의 인상을 고집했다.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총파업부터 시장 전체 운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단위 중앙교섭을 추진했으며, 매 시기마다 다양한 교섭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서는 2008년 6월과 같은 집단교섭은 열리지 못했으며,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의 교섭이 전부였다.

한편, 올해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핵심 이유는 유가 폭등이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특성상 비용이 증가해도 운임이 바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 폭등은 곧바로 화물노동자들을 생존권 위기로 내몰다. 경유가는 2011년 초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하여 5월 초 1,8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반대로 운임은 과적 경쟁과 재벌 대기업들의 운임 후려치기로 2011년부터 계속 하락했다. 이 상황에서 경유가 20~40원만 더 올라도 적자운행이 시작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경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6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더욱 빨라졌다. 화물연대는 기름값으로 인한 대중적 분노가 사그라지던 시점에 파업에 돌입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류세 폐지 또는 면세유 지급 요구를 전면 부각시켰지만, 총파업 돌입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그 절박함이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유류세 문제는 서민들과 운송업계 모두가 체감하는 문제였기에 화물연대 파업은 업종을 넘어 크게 지지받을 수 있는 쟁점이었지만 정세적 조건이 투쟁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이쉬운 결과, 하지만 다음 투쟁을 위한 디딤돌은 놓았다

이번 총파업은 투쟁 양상과 결과만 놓고 보면 2006년 12월 총파업과 비슷했다. 당시 파업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화물연대가 제출한 화물운송사업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받아낸 채 종료되었다. 이번 파업에서도 화물연대는 정부 합의안 없이 민주통합당이 화물연대 요구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

도 개선과 관련된 이번 파업의 결과는 2008년 6월 노정합의에 비해 강제성은 떨어지지만, 구체성과 사회적 지지도에 서는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또한 이번 파업 기간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강제성 있는 표준운임제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마저 정부의 약속 이행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권고가 아닌 화물차주에게 실효성 있는 표준운임제’를 채택했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화물연대는 당사자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을 의제화한 것이다.

자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개선은 주체의 힘과 동시에 매우 큰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투쟁은 더디지만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2003년 표준운임제 첫 제시, 2005년 정부와 여당이 처음으로 공식화, 2007년 시범실시 합의, 2008년 법제화 합의, 2010년 표준운임제 시범 실시를 거쳐, 2012년 6월 ‘직접 강제’ 내용을 포함한 표준운임제의 첫 당론(민주통합당) 채택과 사회적 의제화까지 이뤄냈다. 이제 화물연대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법제화를 이뤄낼 것이냐는 문제만 남았다. 당사자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제로서 표준운임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 압력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25 총파업은 외부적 성과 이상으로 내부 주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파업이었다. 2008년 6월 총파업 이후 3년 넘게 계속된 탄압을 뚫고 화물연대는 총파업 찬반투표, 부산역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키며 조직을 재정비했고, 어려운 여건에서 6.25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비록 성과는 부족하지만 2008년 6월 총파업 이후 3년 넘게 계속된 탄압을 뚫고 다시 화물연대가 제대로 설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화물연대, 다른 10년을 위한 과제: 지도 집행력의 전면적 혁신과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전조직적 집중

6.25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가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은 조직 체계와 지도 집행력의 쇄신이다. 이번에는 간부들의 헌신으로 파업을 5일 동안 이끌 수 있었지만 체계적인 간부 교육훈련, 간부 재생산, 조합원에 대한 교육, 관리 없이는 이런 힘이 유지되기 힘들다. 수그러들기 마련인 조직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보완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다. 수많은 투쟁 속에



서 오랜 생활을 한 간부들은 하나같이 생활고와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젊은 간부들, 새로운 간부들이 충원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혁신을 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조직화다. 파업의 핵심이었던 컨테이너 거점들만으론 화물연대가 예전과 같은 위력을 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부산신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다른 항만과 영인CD(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점차 경량화 된 화물들이 늘어나고 있어 왕카, 탑차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자, 식료품 등이 공항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항만 봉쇄만으로는 교섭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여기에 화물연대 조합원이 거의 없는 글로벌을 선두로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일상적 탄압이 거세지고 있고, 파업시 기에도 파업 파괴 공작이 늘어났다. 주요 공단과 공항에서 운행하는 왕카, 탑차 조직화나 택배·유통업체 간선 화물차 조직화 계획은 매해 제출되었지만, 의미있는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분명한 계획과 집행에 대한 책임 속에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전략조직화, 본부지부의 자원 투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화물연대에게 조직화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2012년 6월 25일 총파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직 침체를 추스르고 제도 개선 투쟁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확보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졌다. 물론 화물연대가 현재의 상태를 확실하게 쇄신하지 못한다면 매번 비슷한 요구를 들고 더욱 악화된 상태로 파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전면 혁신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공정방송 쟁취하고,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광주 MBC 노조 김낙곤 위원장과 인터뷰

인터뷰, 정리 - 민중행동

MBC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150일을 넘겼고 지역에서도 110일을 앞두고 있다. 정치-불법 파업이라는 시측의 여론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정방송, 공정보도라는 방송노동자의 제1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뚝뚝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 방송노동자에게는 공정보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못하게 하는 상황은 우리가 단체행동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한다.



김낙곤 위원장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에서만 117명이 징계를 당하고 8명이 해고당했으며, 추가로 지역MBC 19개 지부에서도 56명이 징계 대기 발령을 당한 상태다. 7월 2일 인사위원회에서 ‘형량’이 결정된다고 한다. 김위원장은 파업을 불법화하려는 시측의 갖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방송, 공정보도가 불가능한 김재철 체제가 그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반증이라한다. 김재철 사장은 진보적 성향의 PD수첩을 없애려하고, 입맛에 맞게 지역MBC 인사들을 물갈이 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언론 공정성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해왔다. 김위원장은 “MB정권과 김재철이 이번 기회에 MBC의 저항하고 단결하는 DNA를 아예 뽑아버리려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 김재철 퇴진을 넘어서 방송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지금 MBC파업의 포커스는 ‘김재철 퇴진’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김재철이 퇴진한다고 해도

방송지배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남는다고 한다. 지금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9인의 이사진이 결정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여권 및 대통령이 추천한 6인의 입김에 의해 사장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김재철이 퇴진한다고 해도 제2,제3의 김재철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MBC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이렇게 임명된 서울MBC의 사장이 자신의 의중대로 지역MBC의 사장을 선임하고, 또한 서울MBC에 지역MBC의 경영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지역MBC의 자율경영은 어려워지고, 지역방송사가 강제통폐합(최근 창원,진주 MBC가 경남MBC로 통폐합되었다)되는 등 지역방송사의 고유성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김재철 퇴진을 넘어 방송지배구조 개혁으로, 나아가 지역방송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담론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김위원장의 포부다.

“ 지상파 방송국은 공공재다. MBC파업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촉구된다.

정권에서는 개입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파업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지만, 지상파는 개인소유의 기업이 아니라 국민전체가 사용하는 공공재이다. 김위원장은 19대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김재철 퇴진 및 구속수사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야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의 투쟁들을 알리는 언론노동자가 되겠다

광주 MBC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지역의 3M, 금호타이어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김위원장은 “우리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 투쟁 사업장들에 나타나는 언론 노동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 방문진 이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통위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여당,야당의 추천에 따라 각 3명씩 임명된다는 것이 방송계 안팎의 정설이다.

2011-2012년 “직업성 암” 집단 산재인정 투쟁 의의와 현황

기고 - 문길주 |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조사결과, 2,153개의 화학물질 중에서 발암성물질은 6.1% 성분확인이 필요한 물질 포함 8.8%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발암성 물질(1A, 1B) 3.4%였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와 기업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파악하여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필요한 발암물질 사용을 자제하는 것에서부터 밀폐나 환기와 같은 공학적 관리수단을 동원하여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임무는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조기 발견하거나 추적 관찰하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으로 직업성 암 추적은 불가능하다. 국가(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발암물질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조치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0년부터 11년까지 87개 사업장에서 12,952종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하여 발암물질 및 기타 고독성물질의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금속노조에 소속된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발암물질 사용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었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총 12,952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1개 제품 당 평균 3건 정도의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다. 12,952개 제품에서 기업비밀이나 정보없음 또는 정보부실 15,299건을 제외하고, 총 69,282건의 유효성분 표기를 확인하였다. 2,153개의 화학물질 중에서 발암성물질은 총 132종(6.1%), 성분확인이 필요한 물질까지 포함하면 8.8%였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발암성 물질(1A, 1B)만 74종 3.4%이었다.

현재 금속노조는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1명이 신청하였다. 광주전남지역의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등에서 16명이 신청하였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 첫째 발암물질도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인식변화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이후 현장에서 암에 걸려 있다는 상담이 많아졌고, 조합원들의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업성 암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부의 발암물질 목록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천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길주
(출처: 금속노동자)

김현미씨, 결혼 했어요?

김현미 | 민중행동 회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지 어느새 십년이 다되어 간다. 처음에 이혼을 할 무렵엔 바람찬 광야에 혼자 선 것처럼 막막했지만 나름대로 결의에 차 있었다.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딛고 일어서야 했다. 사실 이 십대초반에 혁명과 낭만적인 연애의 결과로써 동지적인 결합을 꿈꾸었던 교과서적인 희망과 환상은 내 성격적 결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보기 좋게 깨진지 오래였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복원하고 싶었지만, 어긋난 관계속에서도 끝까지 내 삶의 방식과 활동을 고집하면서 결국 결혼생활은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하다. 민중행동에선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또는 약속이나 한듯 아무도 내 앞에서 남편이나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솔직히 편하긴 했지만 궁금했다. 내 등뒤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이혼녀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가 말이다. 이 사회가 소수자에 대해 그렇듯, 이혼한 여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상근할 때는 같이 활동하는 동지랍시고 쉽게 접근하는 인간도 있었고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면접을 볼 때는 아주 대놓고 퇴짜를 맞기도 했다. 차마 지면으로 옮길 수 없는 자존심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다. 그나마 나는 어른이니 견딜만 하지만 아이에겐 미안하고 안타깝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구에게 놀림 받고, 내게 ‘왜 이혼했냐’며 ‘엄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울며 따지기도 했다. 지금도 무심한 듯 여린 가슴속엔 단단한 분노가 숨어있다. ‘이혼’한 엄마, 놀리는 친구, ‘결손가정’을 가르치는 학교 - 아이는 성장할 수록 다양한 사회적 편견 또는 폭력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사회가 쉽게 바뀌리 없으니 단단한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는 아이대로 견뎌내면서 성장해야 한다.

이혼한 것이 나와 아이의 약점은 아니다. 단점도 아니다. 그렇다고 장점이 될리도 없으니 먼저 밝히지는 않는다. 가끔 이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내가 이혼을 부끄러워한다고 지레짐작하거나 측은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속에서 ‘결혼했어요?’라는 질문은 난감하다. 귀찮아서 대충 ‘했어요’라고 하면 심중팔구 남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안했어요’라는 말은 못하겠고 결국 ‘이혼했어요’라고 말하면 순간 상대방의 당황하

는 표정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 여자는 왜 이혼했을까’ 나는 순식간에 호기심과 탐색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영똥한 얘기같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부당한 결혼을 참지 않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 안하고 동거만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아이 안 낳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면 천편일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평등해지지 않을까. 이 지구위에 인간은 수없이 많고, 삶의 방식 또한 다양하니까. 사회가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글썩.. 몇 년 전 부부싸움한 후배에게 조언하는(부추기는?) 나를 보며 한 남성동지가 말했다. ‘저 사람도 김현미씨처럼 이혼하기를 바라요? 뻔히 힘든 걸 알면서...’ 헉- 나도 이 ×같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혼을 권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혼했냐는 질문에 대한 나의 정확한 답변은 사실 이렇다. ‘결혼 안 했어요, 두 번째는.. ㅋ’

쉬어가는 십자 낱말 풀이

									㉠		
				㉠		㉡					
㉡	㉢										
										㉣	
	㉤										
						㉥	㉦				
	㉧		㉨								
	㉩						㉪				㉫
	㉬										

■ 가로 낱말풀이

- ① 현생인류를 포함하는 종의 학명.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린네에 의해 명명되었다.
- ② 2012년 개봉한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 ③ 말할 수 있는 도(道)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도(진리)는 말로써 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일컫는 <도덕경> 사상의 중심 개념
- ④ 그리스 총선 과정에서 부상한 시리자(SYRIZA)의 뜻. 시리자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부과한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제2당으로 올라섰다.
- ⑤ 산업 혹은 경영의 사유권(私有權)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옮겨 그의 관리를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행함을 말한다. 흔히 민영화의 반대말로 쓰인다.
- ⑥ 태양계에서 4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영어명 마르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군신의 이름이다.
- ⑦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린이들의 노래
- ⑧ 조선 후기의 풍자적인 인물. 평양 출신인 이 인물이 서북인 차별 정책과 낮은 문벌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여 탄식하다가 양반, 부유한 상인, 종교인 등을 재치로 골탕 먹이고 심지어 대동강 강물까지 속여 팔았다는 내용.

- ⑨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빵 한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복역을 하고 한 사제의 자비에 감동, 일생을 정의와 약자를 위해 바칩.

■ 세로 낱말풀이

- ㉠ 애플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중국 조립업체. 중국 최대 수출 기업이나,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집단 자살 등이 이슈가 되었다.
- ㉡ 새누리당은 ‘OOOOO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는데 이름과는 반대로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OO에 들어갈 용어는?
- ㉢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 서구를 모델로 하는 단일한 역사 발전 과정을 전제하는 단어이다.
- ㉣ 양조위, 장만옥 등이 출연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배우자가 있는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영화로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뜻한다.
- ㉤ 경상남도 진주에 전해지는 민요. 가난한 시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여인의 남편인 진주낭군은 기생을 첩으로 데려와 아내를 외면하자 여인은 목을 매 죽고, 죽은 아내를 보고서야 진주낭군이 후회하는 내용.
- ㉥ 유럽의 재정위기는 ‘재정동맹 없는 OOOO’과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는 모순의 결과이다. OO에 들어갈 말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
- ㉧ 해질 무렵 피어서 해가 뜨면 다시 시드는 꽃으로 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노란색 꽃이 지금 2~3cm 정도로 핀다. 기다림, 소원 등의 꽃말을 갖고 있다.

※ 정답은 다음호에 게시됩니다.

<활동보고>

6/7(목) 제주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

6/9(토) ~ 6/10(일) 사무실 공사



많은 회원들이 모여 사무실 공간을
구획하는 판넬 작업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위 사진은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신안사거리 완산골
명가 바로 옆 건물 2층입니다
많은 방문과 집기 찬조 부탁드립니다!

6/12(화)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1인 시위



전국동시다발로 쌍용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6/16(토) 여성모임

6/23(토)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 <금융위기 분석과 현 정세> 두 가지 주제로 상반기 정기교육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6/27(수) 독서모임. 아우를 위하여(황광우)와 필론의 돼지(이문열)를 읽고 폭력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